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3. 27.(금)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감염병조사팀)	과 장	문희천 (031-8030-5910)				
		팀 장	손미희 (031-8030-5791)				
		담당자	오상헌 (031-8030-579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말라리아 매개모기 집중 감시 시작

- 3~11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실시
- 전국 말라리아 위험지역 49곳 중 20곳 경기도, 작년 말라리아 환자 중 절반 이상 경기도 발생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5월 말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환자 발생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49개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운데 20(40.8%)개 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되며,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 545건 중 322건(59.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연구원은 3월 말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 LED 트랩을 설치해 매개모기를 채집,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제공되며 발생 경보 및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2025년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된 2024년에 비해

매개모기 수 자체는 40~60% 이상 줄었지만, 모기 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기 방제 및 환자관리를 비롯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사 진

말라리아 검사 사진

